

연중 제 3 주일

기도서 335 면

제 1 독서 : 느헤 8, 2-4a, 5-6, 8-10

제 2 독서 : 고린 전 12, 12-30

복 음 : 루카 1, 1-4, 4, 14-21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천주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진정한 크리스찬

문 규 현 신부

언젠가 본당의 어느 단체와 야유회를 가졌을 때 일이다. 흥이 돋구어지다 보니 출판이 벌어졌다. 그런데 웬지 모르게 나에게만 어색하기만 하였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았다. 신부가 체통머리가 없게... 체면과 체통이 나를 짓눌렀던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서로 눈치만 보는 자리가 되어 갔다. 고조되어 갔던 흥이 꺼지고 기뻐야 할 자리가 서덕 서덕 하기만 하였다.

그런데.

체면과 체통의 짐질을 벗어버리는 순간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던가 싶게, 자신이 의아해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춤을 추며 멋지게 어울릴 수 있었다. 서로 눈치를 보던 자리는 일시에 기쁨으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었다. 풀어주는 어미 닭의 체온으로 달걀 껍질 안의 생명력이 한 마리의 병아리로 생성되는 신비와, 같은 은총의 순간이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정의하셨다.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 복음(루카 4, 18)은 또한 들은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니(루카 4, 21)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 모두가 당신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요한 7, 22)

우리 크리스찬은 그분과 하나 되도록 불려져, 부름에 응하였고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쁨으로 축성하여 주셨다. 이것이 세례와 전진이 주는 의미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이 되고 있는가?

내 자신 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성취될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우리 주께 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 갑시다.

(팔마본당 신부)

(축) 사제서품

나 춘성, 정 양현, 경 규봉 신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젊은이여, 함께 나누자.

어머니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주는 것」이다. 특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다 준다. 산고의 진통부터 시작해서 눈을 감기까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 그뿐이 아니다. 부모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마실(마을) 온 시부모의 친구에게 내놓는 삶은 감자 몇 알에도 정성이 담겨 있다. 떨어진 속옷이나 먹다 남은 밥덩이와 반찬을 대하면서도 기쁘기만 하다. 오직 자식의 성장, 부모의 즐거워하심, 남편의 건강이면 족하다. 이 모두가 어머니가 주어서 받는 보상이고 위안이다.

주는 기쁨에 대한 가르침을 몸소 몸으로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가르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깎그리 다 주셨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극치이다.

사람들은 대개가 살기에 바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바빠 뛰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보약도 먹고 골프도 친다.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간다. 오직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그러다보니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어떤 때는 귀찮기만 하다. 자신에게 충실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참 기쁨이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땀흘려 애썼던 결과들이 가져다 주는 실망에 허전하기만 하다. 인간이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당연한 귀결이다. 살붙이 아닌 이웃에 관심을 갖자.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웃이나 공동체와 함께 살면서 서로 나누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못느낀다. 젊은이(특히 대학생)여 가진 것을 함께 나누지 않겠는가? 중고생 지도자 연수회가 젊은이를 부르고 있다.

숲 정 이 산책



축하합니다!

□ 1983년도 주교단 사목교서를 통해 본

「교구 공동체의 해」의 의미

많은 이들에게 교구라는 개념이 희박하다. 상당수의 신자들은 본당의 중요성과 소속 단체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교구란 그보다 큰 조직체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교구 공동체를 떠나서 믿음을 전수받을 수 없고, 또 이것을 떠나서 보편적 교회와 믿음 속에 하나될 수 없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1983년을 「교구 공동체의 해」로 정하고 교서로써 그 기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앞두고 민족 복음화라는 대과제를 생각할 때, 올해는 교구 공동체의 일치를 통하여 순교 선열들의 위업을 계승하고 우리 교회 초대 신자들의 열성을 본받을 때이다. 교서를 통하여 간략하게 교구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1. 교구는 기초 단위의 교회

교회의 본질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체로, 성령의 궁전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하느님의 구세경륜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인간의 역사 안에 하느님의 구원계획이 성취되는 곳과 그 성격 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을 가진 교회는 신앙인들의 임의의 단체가 아니고, 주께서 친히 사도들을 선정하시어 그들에게 하느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권한과 책임을 맡기신 위계 질서로 조직된 공동체이다. 주께서 사도단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뜻에 따라 오늘의 교회는 사도단을 계승하는 주교단 위에 존립하고 있다. 지역 교회는 그 지역의 사목 책임을 맡은 주교를 중심으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 따라서 교구는 교회가 성립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초 단위의 교회인 것이다.

2. 일치와 성사인 교구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의 일치,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친교를 나타내는 표지로 도구인 일치와 성사이다. 교구는 주교를 중심으로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일치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하느님께 인도해야 한다.

한 교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장상인 주교에게 순명하고 상호간에 존경과 사랑으로 일치 협력함으로써 하나의 교구 공동체를 이룰 때, 교구는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의 장이 되고, 인간 사이의 일치를 표현하는 성사가 되는 것이다.

3. 하느님과 세상에 봉사하는 교구

주께서 스스로 봉사하려 오셨다고 선언하신대로 교회는 인간 구원을 봉사하기 위하여 파견되었으므로 교구도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에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참된 봉사는 자신의 십자가가 뿐 아니라 이웃의 십자가를 함께 질 때에 가능한 것이다. 교회의 봉사가 궁극적으로 인간 구원을 위한 봉사라면 교구의 모든 활동은 복음 선포에 직결되어야 한다. 교구 내의 모든 사도적 활동, 신심운동과 교육 활동들은 선교에 투신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원로 사제가 새 사제들에게 드리는 글 이 상호 신부

새로 서품되시는 새 사제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교구 사제단에 입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이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가는 이때에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불리움을 받은 사제들의 임무와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많은 활동과 업무량에 시달리는 현대 사목생활 속에서 자칫하면 자신을 망각하거나 기계화되거나 또는 무사안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기만의 시간, 자기의 탄성과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기에 영적생활과 지식 연마에 게을리 말것이며 기도하는 사제, 공부하는 사제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의 사제가 되어야지 소수인의 특권물이 되어서는 안되었습니 다. 그래서 사제생활은 개방된 생활이어야 하고 대화와 인화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모든이에게 예의바르고 친절 하며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신사도를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사제생활은 초기가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사제의 바른 생활이 습성화되도록 힘써야 하며 성급한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로써 한 단계 한 단계씩 쌓아 올라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하시고 더욱 건전한 정신으로 교회와 사회에 많은 공헌있기를 빌며 부디 모든 이의 존경받고 신임받는 사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삼례 본당 주임신부)

□ 세 분의 사제 서품에 바치는

기 원(祈願)

주여, 오늘 당신 제단 앞에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구원의 빛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사제들을 축복하시어 함께 하소서.

당신이 손짓하시기에 달려와, 길고 긴 세월의 단련과 모진 산고 끝에 빛어진 당신의 도구이오니, 좁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희망되게 하시고, 길 잃고 방황하는 지친 나그네의 포근한 안식처 되게 하사,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넘치는 기쁨을 얻게 하소서.

오로지 당신 말씀으로 숨쉬게 하시며, 생각과 말과 행위의 일치를 주시어 참된 평화와 자유를 당신 안에서 얻게 하소서.

가진 것을 바침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들어내어 타오르는 사랑의 촛불이오니 높이 들어 올려 밝히시며, 당신의 무거운 십자가를 나누어 지고 따르는 가시밭 길에,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소서.

행여,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불꽃이 깜박인다 하여 끄지는 마시옵고, 당신의 입김으로 다시 살게 하소서.

주여,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어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중앙성당·신글라라)

- 혼수(회갑) 옷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칩주류
- 각종 솜 일체
- 커멘지

도매상

서울 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 마춤·대여

웨딩드레스·약혼복·연주복·부케·신부화장·비디오 촬영

신부의 집

동서관통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⑥ 6951

정인기(논지도)

푸른 사장	정약국
이준영(모이세)	약사: 정석현(마르코)
전화 2-3840	전화 2-9615
구 성모병원(시내버스 승강장) 앞	□ 성모병원
팔 달 로	
□ 정동성당	■ 정약국 푸른사장



□ 사제 및 부제 서품식(26일 중앙성당)

【모시는 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원으로 저희 교구에서 올해도 세 분의 새 사제가 주님의 제단에 오르게 되었고 세 분이 부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자리를 함께 하시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집전 : 박 정일(미카엘) 주교, 일시—1983년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전주 중앙 천주교회

새 사제 : 나 춘성(스테파노), 쫓미사—27일 오전 11시 팔마성당

정 양현(베드로), 쫓미사—27일 오전 11시 김제성당

경 규봉(가브리엘), 쫓미사—27일 오전 11시 고산성당

새 부제 : 방 의성(베드로)—전동성당, 이 성우(마리아)—창인동본당
김 요안(요한)—삼례본당

전주교 전주교구 사 제 단
전주교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 사제 인사이동 및 지도신부 임명

성 명	가시는 곳	계시던 곳
아 종 원 신부	제주 교구 파견	장 수 주 임
전 대 복 신부	아르헨티나 교포사목	고 산 주 임
김 기 수 신부	로 마 유 학	무 주 주 임
박 병 준 신부	고 산 주 임	진 동 보 좌
이 박 상 섭 신부	무 주 주 임	둔울동 보 좌
박 인 호 신부	창인동 보 좌	노송동 보 좌
박 찬 길 신부	진 동 보 좌	중앙 제2보좌
안 철 문 신부	중 앙 보 좌	창인동 보 좌
나 춘 성 신부	노송동 보 좌	덕 진 보 좌
정 양 현 신부	덕 킨 보 좌	새신부(1월 26일 서품)
경 규 봉 신부	월명동 보 좌	"
단 체 명	지 도 신 부	
성 모 기 사 회	파티마본당 주임신부	
농 민 회	사무국장 겸 임	

□ 제2차 200주년 전주교구 중앙회의

20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또한 우리 모두(성직자, 수도자, 평신자)의 참여 없이는 200주년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지난 1월 14일 제2차 200주년 전주교구 중앙회의가 교구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분과인 기념행사분과, 기념회의분과, 정신운동분과, 기념사업분과의 83년 사업계획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체적인 계획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200주년 행사를 위한 모든 비용은 추 본당적으로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게 된다.

□ 이 병호 신부님 귀국

지난 76년 불란서 파리로 유학을 떠나셨던 이 병호(빈첸시오) 신부님께서 파리 가톨릭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지난주에 귀국하셨다. 신부님께서는 새 학기부터 광주 대전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맡게 되신다.

직원 채용 공고

- 모집인원 : 여자 0명
 - 자격 : 전주시 거주자로 고졸(예정)이상 만 18세~21세, 주산 부기 2급 이상자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자격증사본 1부
 - 접 수 : 83.1.19~1.31.17시
호자동 1가 194번지 (6-4559)
 - 전형방법 :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 접수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전주 파티마 신우협동조합 이사장 이 교성

개성지순례 및 신혼여행업

- 유한 회사 호남관광
- 국내여행 및 해외여행안내
 - 겨울철 온천 관광 모집
- 전주 중앙극장 사거리
☎ 2-9797·2-0239
대표—이 종길(요한)

요심이 (494) 김병오



의료효과의 선구자!
신비의 토론회

성모土龍 쎄타

왜관(聖 베네딕트 修道會)

※ 간경화 및 위암은 직접 문의 바람

- ◎전북 총판 : 전주 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72-3925
- ◎제조공급처 : 경북 칠곡군 왜관읍(수도원 농장)
전화 2-2626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밝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쎄타

구 역전 오거리 전화 ③3032
윤(베드로) 종선



1. 사제 및 부제 서품식: 1983년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중앙천주교회
2. 4지구 6학년 학생 피정: 27일 오후 2시~28일 오후 4시(1박 2일)
장소-가톨릭 센터, 강사-4지구 본당신부님들, 회비-4천원
3. 중·고등학생 지도자 연수회: 28~30일, 장소-가톨릭 센터, 참가비-8천원
4. 중·고등학생 성서세미나: 26일 오후 1시, 회비-4천원, 장소-가톨릭 센터
5. 꾸르실료 교육: 여성 제14차(1월 26일까지 접수 마감)
6. 공동체 목상화(기초 코스): 선착순 40명, 2월 22~25일, 접수-교육국, M.B.W 추진회

(중앙)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 보좌 한기호
보좌 신부 박인협
사도 회장 김인협
전화 ①7111~3

1. 안드레아반 교리반 모집: 시간-주일 9:30(오전), 목요일-오후 7:30, 지도-한신부님
 2. 초등부 영세: 28일 어머니 미사후, 첫교백-29일 2시, 첫영성체-30일 공식미사 중
 3. 초 봉헌: 30일 공식미사 중에
 4. 고등학생 하루 피정: 29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5. 꾸리아 월례회: 2월 6일 오후 2시
 6. 프란치스코 심의회: 23일 공식미사 후 중앙성당
 7. 주일학교 6학년 피정: 27일 2시~28일 5시, 참가비-본당 보조 2500원, 개인 1500원
 8. 83년도 전례준·박노준·이영희·박명숙·권오숙·김종순·김미자, 수고하시겠습니다
 9. 2젠 대회: 서훈 명상의집 (28~30일), 신청-박신부
 10. 성전 신축 헌금 심의해 주신 분: 박우하·조윤숙(각 5만원), 장진래(20만원), 김귀례·안이분·김금주(각 10만원), 소병희(50만원), 박순부(1만원)
신축헌금 누계: 113,367,600원
- 지난주 봉헌금: 773,841원 교무금: 1,171,600원

(노송동)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②7032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송재
신부 ②0969

1. 사도회 확대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참석 바람
 2. 세미나 개최: 2월 7일~11일, 많은 분들 참여를...
 3. 주일학교 6년 피정: 27일 오후 2시~28일 오후 4시
 4. 중·고학생 지도자 연수회: 2일(금) 오후 5시~30일 오후 4시까지, 가톨릭 센터,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5. 교무금 수입: 가입, 못하신분 속히 수입하세요
 6. 차주 전례담당
새벽미사: 해설-은경순, 독서-①백인기 ②백금혁
공식미사: 해설-이종관, 독서-①문명식 ②김규례
저녁미사: 해설-박은경, 독서-①이종승 ②이미경
기도담당-박기성·정순자, 제물봉헌-이대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본당-332,795원, 아파트: 43,360원
지난주 교무금: 본당-151,000원 아파트: 31,000원

(덕진)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성열
전화 ③2182번

1. 안철문(이나시오) 신부님 중앙으로 전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임에 정양현(베드로) 새 신부님
송별미사-30일 10시30분, 환영미사-6일 10시30분
 2. 축! 사제서품: 정양현(베드로), 신부님 부제서품-이성우(마리아)
 3. 예비자 교리(신앙강좌): 오늘 공식미사 중 개강식-27일 저녁 7시30분
 4. 사도회 피정: 30일(차주) 오후 3시~8시까지
 5. 공동 동계 특별교리: 전당리·미산리·동산촌·내동리 동시 실시, 오전 10시~12시, 많은 어린이 보내주세요
 6. 부녀회 월례회의: 공식미사 후, 어머니들 참석 바람
 7. 청년회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 지난주 봉헌금: 401,955원 감사헌금: 45,000원

(복자)

주임 신부 권영교
사도 회장 조성호
전화 ⑤5238번

1. 사도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구라주일 특별헌금: 다음주일(30일)
3. 예비자 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히메레사제 지도)
4. 4지구 주일학교 졸업생 피정: 27~28일(1박2일)
회비-2,000원 사도회 지원-2,000원
5. 영세하신 분들 재교육: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6. 복자 치명자의 모후 꾸리아 탄생: 16일 꼬미시움 승인, 회합-매월 둘째주일
 7. 83년도 전반기 예비신자 교리교육
장소-가톨릭센터 3층, 일시-2월 3일 오후 7시30분
 8. 금주전례: 해설-최성준, 독서-①박상기 ②천진기
기도-정윤주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김성원, ②김인식
- 지난주 봉헌금: 467,060원

(서학동)

주임 신부 김명환
사도 회장 활인규
전화 ②2276번

1. 사도회 임원개편: 회장-한형수, 부회장-이정빈·김낙균, 장기호(사제양성후원 전달), 선교-김낙완
교육-신영창, 봉사-박경환, 전례-김광수, 재경-박형식, 주일학교장-김나섭
 2. 주의 봉헌축일: 2월 2일 저녁 6시30분 초 봉헌 있음
 3. 꾸르실료 교육: 남성 제17차(2월 26일~3월 1일)
 4. 예비신자 교리실시: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회의실
 5. 은인 구함: 미사후·제대 꽃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6. 감사합니다: 손숙사제 제병대 1년분 90,000원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활문권 ②박형식
- 지난주 봉헌금: 266,485원 교무금: 105,500원

(순정리)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결
전화 ③7366

1. 요한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성령기도회: 매주 금요일 19:30
 3. 초 축성예식: 2월 2일 주의 봉헌축일에
 4.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강삼·강원모
기도-남상용·이철수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송용호·백지현
기도-김경주·김정분
 5. 축! 결혼: 신랑-김재권(요셉), 신부-심승남
일시-1월 23일 11시30분, 장소-중앙성당
- 지난주 봉헌금: 154,380원 교무금: 389,600원

(전동)

주임 신부 김병엽
사무 ③3222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보좌신부 인사이동: 박병준(필립보) 신부님 수고했습니다, 박찬길(마카렐) 신부님 앞으로 수고하세요
 2. 사도회: 공식미사 후
 3. 글라라 행제회: 다음주 오후 1시
 4. 신학생후원회 조직: 회원 1인당 1천원, 전신자 참여
 5. 축! 부제품: 방의성(베드로) 학사 26일 10시-중앙
 6. 주일학교 6년 피정: 27~28일(1박2일) 회비 1,000원
 7. 성화회 임원개편: 회장-이덕수, 부회장-박순기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중주,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김병오 ②백종홍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정동희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595,365원 교무금: 290,000원

(파티마)

주임 신부 김영일
수녀 ②4804 사도회장 황희상
신부 ②0915

1. 오늘 오후 2시 대학생 전원 참석을 바랍니다
 2. 유아세례: 다음주 오후 3시30분 미사후
 3. 2월 레지오연총친목회: 브레시더움별 장기자랑 준비
 4. 불우이웃과 해군돕기: 헌옷과 서적을 구정을 기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5. 애령회 간부: 다음주 저녁미사 후에 모입니다
 6. 2월 2일 초축성: 초 봉헌하실 분 미리 준비바랍니다
 7. 로마 슬라이드 판상식 황등 글라라 수녀원을 위해
축성 모금액 44,380원
- 지난주 봉헌금: 214,465원 교무금: 235,000원